

연구원 소식

전주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기록화 사업 용역 계약

우리 연구원 이정욱 운영위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이 연구 책임자로 전주 기자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해체, 재개발되는 마을 기록화 사업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위치한 기자촌은 지난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0년 사업시행이 최종 인가되어 공동주택 23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주시 조례에 따라 지역 재개발 사업 시 필수적으로 해체되는 마을의 역사화를 위해 기록화 사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번에 우리 연구원이 기자촌 지역의 기록화 사업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분해된 마을 기록화를 통한 지역사의 역사화
- 마을 주민들의 생활·문화사와 마을의 형성 및 공동체 활동 채록
- 도시화에 따른 지역 공간 및 공동체의 변화를 추적 분석

위와 같은 목적을 두고 시행되는 이번 기록화 사업을 통해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기자촌 지역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계시거나 마을의 역사를 구술하실 수 있으신 회원께서는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한국 최초의 볼펜 - 1963. 05. 01



근대화과 더불어 사라져 간 붓을 대신해 필기구의 혁명을 가져온 것이 볼펜(Ballpoint pen)이다. 깎아 쓰기 위해 칼이 필요한 연필이나 잉크를 찍어 써야하는 펜촉, 보충용 잉크가 필요한 만년필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한 것이 바로 볼펜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뒤였지만 한국에서 생산하는 필기구는 연필과 만년필이 전부였다. 그해 열린 제5대 대통령 선거를 5개월 보름여 앞둔 5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볼펜이 만들어졌다.

1960년 광신화학이라는 이름으로 필기구나 사무용품을 판매하던 기업은 1963년 5월 1일 60여년이 흐른 지금도 애용되며 현재까지 40억개에 가까운 누적 판매량을 자랑하는 볼펜을 만들었다. 순수한 발명품이 아니라 일본 오토(オ-ト)사의 '연필형 노크식 오토 326(鉛筆型ノック式AUTO326)' 펜의 독특한 디자인을 채용, 변형하여 개발한 제품이었다. 이 볼펜은 1963년 개발, 시판된 이래 지금도 여전히 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볼펜하면 떠오르는 대명사에 다름없는 디자인으로 시판된 이 볼펜의 이름이 바로 "모나미 153"이다. 볼펜 이름인 모나미는 내친구라는 프랑스어 '몽아미(mon ami)'에서 따왔고 153의 15는 당시 판매가격이었던 15원을 의미하고 3은 기업에서 생산된 세 번째 제품을 의미했다. 혹자는 판매 개시일인 1963년 5월 1일의 351을 뒤집은 숫자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숫자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싸인펜의 제품명으로 사용되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153"은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성경 구절을 의미하며 153 볼펜은 하나님의 뜻, 즉 순리에 따르면 그만큼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총인 AK-47을 본 따 볼펜계의 AK-47로 불리기까지 하는 이 볼펜은 매우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며 낡아서 부서지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내구성을 갖고 있다. 가끔 운동장 웅덩이에서 볼펜의 용수철이 녹슨 채 발견되어도 필기가 가능하다는 전설같은 경험을 만날 정도이니 그 튼튼함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필기 이외에 몽당연필의 이 볼펜의 펜대에 끼워 쓸 것을 학교에서 권장할 정도로 활용되었고 선거 도장이 도입되기 전 볼펜 뚜껑이 기표 도구로 사용되는 일도 흔했다.

1963년 이 볼펜을 판매하기 시작한 회사는 1967년 아예 회사 이름을 제품 이름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